

두 번째 계약

이삭은 거짓말을 하고 아비멜렉의 백성들은 우물을 메웠다. 자손 대대로 서로에게 후대하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계약은 아들 세대에서 깨어졌다. 도시를 떠나 골짜기로 나왔지만 우물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었고 이삭은 계속 새로운 우물을 파면서 자리를 옮겼다. 이삭이 마지막 도착한 곳은 브엘세바였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었던 그 자리였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 창세기 26:27

이번에도 그랄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다. 그랄 사람들은 깨어진 계약을 회복하기를 바랐다. 그들이 이삭이 떠나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들 보다 강했기 때문이었다. 자기 성읍 안에 더 강력한 힘과 재산을 가진 세력이 있는 것이 좋을리가 없다. 이삭은 날로 부유해지고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종이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원수지간이 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 창세기 26:28

그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때와 같은 이유였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을 때 그랄 왕이 한 말도 이리했다. 21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 창세기 21:22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었다. 그랄 사람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아니다. 그랄의 블레셋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남신, 땅의 여신을 숭배했다. 그들에게 여호와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었다.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런 사람들과 척을 지고 살 필요는 없었다. 앞으로도 이삭은 더 큰 세력을 이룰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이삭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날 하루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고 맹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맺었다. 이로써 깨어진 평화조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이삭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척박한 땅을 떠도는 나그네가 거부가 되고 강성해져서 그 땅의 임금이 먼저 찾아와 조약을 맺자고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맺은 약속은 깨어졌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첫 약속이 깨진 근본적인 원인은 이삭의 거짓말이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거짓말이었다.

잘못된 적용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먼저 찾아와 고개를 숙이는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적용이다. 제발 그러지 마라.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마태복음 22:37-40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 마가복음 12:33-34